



아카데미 소개

루이 14세 치정 아래, 콜베르 재상의 뜻에 따라 1663년 설립된 ‘금석학 및 문학 아카데미’(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-Lettres)는 프랑스 학사원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분과 중 하나이다. 이후 본 아카데미는 1805년부터 루브르의 맞은 편, 둥근 지붕의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‘꼴레쥬 데 카트르나씨옹’(Collège des Quatre Nations)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.

본래 ‘금석학 및 메달 아카데미’(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Médailles)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본 아카데미의 임무는 건축물이나 메달 및 왕이 발행하는 동전 등에 새겨질 라틴어 및 프랑스어 명구들을 선별해내는 것이었다. 훗날 1701년의 개혁안에 따라 현재의 명칭 및 역할이 부여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, 이에 ‘금석학 및 문학 아카데미’의 주요 역할은 그리스-로마의 고대, 중세, 고전주의 및 가깝고 먼 동방국가 문명에 대해 연구하며 그 연구 축적물을 배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 오늘날 아카데미의 연구 방향은 유럽 이외의 다른 대륙, 예컨대 아메리카 인디언 등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었으며 그 연구 분야는 역사학, 고고학, 예술사, 문헌학, 언어학, 문학 및 사상사(史) 및 금석문자학 및 화폐연구 외교학 등의 관련 학문까지를 아우른다.

1665년 창간되어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<지식인의 저널>(Journal des savants)이 보여주듯 ‘금석학 및 문학 아카데미’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지식사회의 맥을 잇고 있으며 아카데미의 활약상은 전 세계에 알려진 아카데미 주관의 출판물의 권위와 명성이 증언하고 있다.

한편 아카데미는 각종 시상(施賞) 제도를 통해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 성과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과학 및 지식 분야의 연구 성과의 국내외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.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출판 활동으로 본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과학 분야 출판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체



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. 국가가 부여하는 사명에 따라 아카데미와 관련된 주제의 다른 공공기관에 관한 자문 역할 및 전문가 감정 역시 아카데미의 중요한 역할이다. 이와 더불어 해외에 위치한 연구 기관 감독 및 프랑스의 주요 교육 및 연구기관의 보직 임명에 관한 조언 역시 아카데미의 빼 놓을 수 없는 역할이라 하겠다.

이처럼 ‘금석학 및 문학 아카데미’는 인문학적 자취를 발굴하여 이를 오늘날 다시 살아나게 해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‘콩세르바투아르’(conservatoire) 역할을 하며 인간 및 사회, 문화에 관한 연구가 생동하는 보금자리라는 의미에서 ‘연구실’(laboratoire)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.

**주제어 : 아카데미 - 역사 - 고고학 - 인문 과학 - 문헌학 - 오리엔탈리즘 - 고대 - 중세 - 지식 - 전문
서적 출판 - 메세나**

